

KRE리porter 3월 강원지회 간담회 결과

1. 회의 개요

- 목 적: 농업·농촌 현장여론 수집, 회원 농가 방문(산란계)
- 일 시: 2019년 3월 27일(수)~3월 28일(목)
- 장 소: 강원 강릉시
- 참 석: 총 9명
 - 강원지회 리porter(9명): 송인숙, 최무열, 박정숙, 유영조, 이진수, 신금영, 변해동, 박현근
- 주요 일정

시 간	일 정	비 고
12:00~14:00	점심식사	송천식당
14:00~15:00	견학	양서류 서식지, 청지원(송인숙 회원 농가)
15:00~17:00	견학	인근 관광지(오대산, 소금강)
17:00~18:00	저녁식사	송천농원
18:00~23:00	간담회	'미세먼지', '고령자 운전' 등 현장여론 수집
23:00~	취침 및 휴식	청지원
07:00~08:00	아침식사	진고개휴게소

2. 주요 내용

1) 농업·농촌 현장여론 수집

- 농산물 산지폐기에 대한 해결방안
 - 심호섭: 언젠가 보니 농산물 생산량이 어느 곳은 과잉이고 어느 곳은 모자라는 것으로 조사 기관마다 통계치 차이가 매우 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산지폐기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농업 통계의 정확성을 높여 신뢰할 수 있는 관측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변해동: 한 해는 농산물 가격이 너무 싸서 폐기하고, 한 해는 너무 비싸서

수입하는 것은 농산물 시장의 자생력이 없어지는 정책입니다. 수입도 하지 말고 폐기도 안 해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산지폐기 문제보다는 흉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 최무열: 세계의 흐름이 우리의 농사의 실패를 좌지우지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도 가격하락으로 팔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정부와 계약이 되어서 산지폐기가 되면 보상금이라도 받지만, 일반적으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더 많습니다. 들은 이야기로는 블루베리를 한 평당 50,000원에 지원을 받아서 심었는데 그 블루베리를 85,000원을 주고 폐원을 했다고 합니다. 심으라고 돈 주고, 폐원하라고 돈 주고, 보조금이 이렇게 헛되게 쓰여서는 안 됩니다. 보조금은 열심히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지원되어야 합니다.

- 신금영: 우리나라는 농정부터 시작해 농업 관련 분야가 매우 분산되어 있어 실효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는 지도, 경제, 농기계 수리, 판매 등 조합원인 농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합니다. 물론 농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농기계면 농기계, 농산물 판매면 판매, 분야를 세분화해서 전문성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토마토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전남권에서 양파를 무수히 폐기한다고 들었습니다. 산지폐기보다는 수출을 유도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 수출이 안 되면 가난한 나라에 구호식량으로 보내는 것이 버려지는 것보다 훨씬 옳다고 생각합니다.

- 유영조: 작년 가뭄으로 올해는 감자 씨가 없다고 하다가 심을 시기가 지나고 나니 감자 씨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요가 몰리는 때에는 품귀 현상으로 인해 또 생산이 몰리고, 가격은 폭락할 것입니다.

- 송인숙: 농사라는 것이 심는 것보다는 가뭄이나 이런 천재지변이 더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농산물 가격이 좋았던 이유가 날씨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농산물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가공이라도

해 판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옥수수를 하는데, 가격이 폭락했을 때 옥수수 싹을 만들고, 감자도 전분을 만들었습니다.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에 한해서는 소규모 가공,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면 좋겠습니다.

○ 스마트팜 혁신벨리에 대한 의견

- 신금영: 저는 지금 핸드폰으로 농장의 하우스 온도와 습도, 수분을 측정해서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설치 비용은 80만 원이었고 한 달 사용료가 1,500원입니다. 1천 평을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스마트팜 교육이 있었는데 14주에 수강료가 370만 원이었습니다. 농사라는 것이 대규모 시설로만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형으로 거대해지는 스마트팜 혁신벨리는 반대합니다. 노동효율을 위한 부분적 첨단시설화, 스마트팜 교육비 지원, 기존 스마트팜 활용 등이 필요합니다.
- 송인숙: 유리온실로 망한 농가가 많았습니다. 사업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스마트팜 혁신벨리 사업은 잘 추진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오류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방안 등 사전에 준비할 사안이 많을 것입니다.
- 박현근: 스마트팜 지원을 받아 농장 관리도 하고 묘를 키우고 있는데 간혹 오류가 발생합니다. 아직 불완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 미세먼지 발생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안

- 유영조: 미세먼지의 피해 사례부터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대책이 세워질 것입니다.
- 신금영: 토마토를 재배하며 비가림을 하는데 미세먼지로 일조량이 적어져서 생육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생산량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옷자람 등의 피해도 발생합니다.
- 변해동: 비가림을 하는 이웃 이야기가 황사는 비가 오면 빗물로 닦여졌는데, 미세먼지는 하우스 비닐에 겹겹이 묻어 있는데 비가 와도 닦여지지 않는

다고 합니다. 소방서에서 고압분무기를 이용해서 하우스에 붙은 미세먼지 제거 작업을 정기적으로 해 주어야 농민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이 필요합니다.

- 박현근: 비닐을 10년 정도 사용하려고 비싼 비닐을 구입해 쓰었는데, 요즘 미세먼지로 비닐의 햇빛 투과량이 적어서 걱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비닐을 일 년에 한 번은 교체해야 농작물이 제대로 자랄 것 같습니다. 유기농 보리 새싹을 생산하는 지인이 있는데 노지에서 키워 납품하고 미세먼지 속 중금속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친환경 농가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 박정숙: 농민들에게 방진 마스크 지급이 필요합니다.
- 최무열: 방진마스크는 쓰고서 밭일을 하면 호흡곤란이 올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이 더욱 심해진다면, 농업 환경에 맞는 간편한 방독면이 개발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 고령자 운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

- 박정숙: 친정 아버님이 87세입니다. 집에서 일하시는 밭까지는 거리가 있어서 차를 운전해 가십니다. 사고가 날 것 같아 하루하루 조마조마한데, 식구들이 아무리 말려도 운전하셔서 걱정이 많습니다. 운전자 및 보행자, 여러 사람을 위해 일정 연령 이상 고령자에게는 운전을 못하게 하는 법이 생겼으면 합니다.
- 심호섭: 공감합니다. 65세까지는 10년에 한 번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지만, 65세가 넘으면 70세까지는 3년에 한 번, 80세까지는 1년에 한 번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5세부터는 치매 등 인지검사를 추가항목으로 검사해야 할 것입니다.
- 유영조: 시골길은 도시와 달라서 도로가 좁습니다. 오늘도 시속 40km로 가는데 보니 노인이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추월도 불가능하고 한 시간을 뒤쫓아 왔습니다. 얼마 전에 택시를 탔는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운전하

는데 타는 내내 불안에 떨었습니다. 1차적으로 영업용 운전은 고령자에 대한 운전 제한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못하게 하면 반발이 있을 것이니 기능 검사 세밀화, 검사주기 단축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변해동: 저도 82세 아버지가 새 차로 바꾸셨습니다. 일반 승용차가 아니라 RUV로 바꾸셨는데 걱정입니다. 머지않아 자율운전 주행이 보급화되면, 고령자에게 먼저 보급했으면 합니다.
- 박현근: 농촌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 상황이라면 90세, 그 이상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운전을 해야 합니다.
- 이진수: 농촌은 운전해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농촌에서의 음주운전입니다. 1km로 떨어진 옆집에서 술을 한잔하고 대리를 부르려면 30km 떨어진 읍내로 연락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은 부족하고, 대리 운전도 많지 않다보니 가까운 곳은 음주상태로 운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령자 운전보다 더 심각한 사고위험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기타 농업·농촌 현장 이슈

- 최무열: 농특위에 농민의원 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조직이 농민의 수가 적다는 것은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의원 수를 늘어야 현실적인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진수: 우리나라에 한봉협회가 있는데 이 협회는 국가에서 하는 보조사업을 한봉협회 회원으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농민만 가입 가능합니다. 한봉협회가 강원도에는 시군단위에 두 군데뿐이 없습니다. 가입비도 1백만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협회에 가입할 수 없는 조건인데 이 사안은 별산업 발전에 방해됩니다. 그래서 한봉, 양봉을 합해서 종봉협회를 만들었고 조건은 벌을 키우고 있으면 가입 가능합니다. 종봉협회를 운영하려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유영조: 농촌에서는 최근 노후를 위해 태양광 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

니다. 한전에서는 100kw 이상은 입찰한다고 합니다. 농민들이 생산하는 전기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진수: 태양광 시설은 추후 폐기할 때 폐자재가 많고 비용이 들지만 소수력은 그와 비교해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농촌에 흐르는 계곡이 많으니 소수력 발전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회원 농가 및 인근 관광지 견학

○ 국립공원 생태보전벨트 지역 ‘개구리 생태마을’

- 논이 사라지면서 개구리가 서식할 곳이 없어져 개구리의 개체 수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멸종되어 가던 중에 주민 자발적으로 조직을 만들어 오대산 국립공원과 같이 개체 수 보전 및 보호 그리고 번식을 통한 개구리 알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 서식지에서 개체 수가 늘면서 주위의 먹이 증가로 뱀과 새 그리고 두꺼비, 도롱뇽 등 다양한 종의 생물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언론보도] "양서류 살려야 건강한 생태환경 유지되죠" 경향신문(2019.3.27.)

- 오대산 진고개로 향하는 길목 삼산4리 주민들이 개구리 살리기 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것은 15년 전부터다. 봄철 계곡과 산에서 산란을 하기 위해 물이 고인 습지를 찾아 6번 국도를 횡단하던 개구리 등이 매일 밤 차에 치여 수백마리씩 떼죽음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것이 계기가 됐다.
- 주민들은 이때부터 6번 국도 변 가드레일 500m 구간에 망과 포집 틀을 설치해 로드킬 위기에 처한 개구리와 두꺼비 등을 구조해 인근 논에 풀어주기 시작했다. 매년 봄 주민들이 이처럼 구조한 개구리와 두꺼비는 5000~1만여마리에 달한다. 그동안 10만마리가 넘는 양서류를 구조한 셈이다.
- 하지만 산골지역 논이 점차 줄어들면서 주민들도 고민에 빠졌다. 양서류의 산란처 역할을 하던 논이 사라져 번식에 차질이 빚어질 위기에 처하자 주민들은 고심 끝에 5년 전 2곳에 495㎡ 규모의 인공습지를 만들었다.

○ 송인숙 회원 농가 ‘청지원’

- 1993년에 귀농을 해서 토종닭, 옥수수, 감자, 고추, 콩을 심고 있는 농장입니다. 토종닭을 넓은 공간에서 방목해 키우고 발효 사료를 만들어서 먹고 있습니다.

3) 2분기 강원지회 간담회 계획

- 유명조: 다음 모임은 5월 20일~ 21일에 철원군에 위치한 이윤희 님 댁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정 참고하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 이모저모

